

최근 북한 주민의 여가활동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김미연 (nkkmy83@kdb.co.kr)
 강민진 (minjin203@naver.com)

- ◆ 김정일 시기까지 북한 주민의 여가활동은 지역 간 이동 제한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제한적
- ◆ 김정은 시기에는 주민생활 향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평양 및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 및 관광·오락시설 등을 활용한 여가활동 확산
- ◆ 특히, 'MZ세대'에 해당하는 '장마당 세대'(2030 청년세대)는 휴대기기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여가활동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
- ◆ 최근 여가활동의 다양화 양상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유 증가를 나타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외부문화 유입으로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체계는 강화 추세

□ 김정일 시기까지 북한 주민의 여가활동은 지역 간 이동 제한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공연 관람 중심의 제한적 여가(餘暇)*에 한정

* 경제활동 이외 휴식을 겸한 여행, 스포츠, 문화생활 등 다양한 취미·오락활동을 포함하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북한 당국은 거주지를 벗어난 원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개인 자동차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간 휴가·여행에 제약
 - 지역 간 이동 시 안전부·보위부 등 당국 관리자가 승인한 '출장 증명서', '여행 증명서'가 필요
 - 일부 당 소속 간부들은 개인 구매 차량을 소속기관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나 일반 주민들은 기차 등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의존
 - ※ 증명서 발급을 위한 뇌물(뒷돈) 거래도 성행. 데일리NK(2022.1.5), "北, 증명서 발급체계 변경...이동시 비상방역사단 승인도 받아야", 매경프리미엄(2018.5.22), "마이 카' 불가능한 사회주의 북한, 개인은 어떻게 차를 소유할까"
- 김정일은 2000년대 초부터 영화 및 예술, 서커스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장려
 - 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동평양극장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국립연극극장, 양강도예술극장,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등을 신축하여 관람시설 확대
 - ※ 통일뉴스(2008.12.13), "평양시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은?"

□ **김정은 시기에는 주민생활 향상을 핵심적 과제로 제시하고 평양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공연 관람 이외의 다양한 여가활동 확산**

○ 스케이트장, 승마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확대로 스포츠 활동이 다양해졌으며, 동물원, 놀이공원, 영화관 등 관광·오락시설을 활용한 여가활동도 증가

김정은 시기 여가시설 확충 현황(개보수 포함)

구분	연도	시설명
스포츠 시설	2012	평양야외빙상장, 평양롤러스케이팅장
	2013	능라인민체육공원, 국제축구학교, 평양체육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 마식령스키장, 양강도삼지연스키장, 백두산지구체육촌
	2014	개성물놀이장, 청춘거리 체육촌, 메아리사격관, 5월1일경기장
	2017	평양보통강변체육촌
	2018	강계스키장
	2020	동평양경기장
관광·오락 시설	2012	능라인민유원지, 능라곰등어관, 원산해안유희장, 송도원유원지, 신의주압록강유원지,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함흥시마전유원지, 강계시역전공원, 강계시강서아동공원, 강계청년공원
	2013	회령유원지, 능라인민유원지 전자오락관, 능라입체운동영화관(4D영화관)
	2015	원산동물원
	2016	평양중앙동물원, 평양자연박물관
	2019	양덕온천문화휴양지
	2021	자강도예술극장, 평양북도미술전람관
2022	남포시청년야외극장	

자료 : 각종 매체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문수물놀이장



자료 : 연합뉴스(2013.8.16)

능라곰등어관



자료 : 서울신문(2020.8.27)

□ 특히, 김정은 시기에 부상한 장마당 세대*는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여가활동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

* MZ세대(1981~2012년생)와 유사한 시기에 출생하거나 아동기를 보낸 2030 청년세대로 북한 전체 인구의 14%(약 350만명)로 추산되며 시장경제 및 개인주의 중시(여성조선, 2021.10.12)

○ 개인 일상생활을 촬영한 동영상 공유, 야외 콘서트 참여 등 장마당 세대만의 개성 있는 여가활동 확산

- 휴대전화, USB 보급 등으로 개인이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보급·유통함으로써 세대 간 직접적인 네트워크 형성
- 청년절* 기념 야외 공연(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풍선, 카메라, 손전등을 흔들며 함성으로 환호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연출

* 김일성이 만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일(1927.8.28)을 청년절로 제정해 '91년부터 매년 기념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 KBS NEWS, 2021.8.28, "[클로즈업 북한] 北 체제 흔드는 MZ세대...기강 잡기 통할까?"

○ 외부에서 유입된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유통 가속화 및 음주 공간 다양화로 '폭탄주', '파도타기' 등 음주문화 모방 성행

- 성별에 관계없이 맥주를 즐기는 젊은 층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대동강맥주 비어홀, 대동강맥주 축제 등 음주 공간 확장

※ 조정아(2017),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 최근 여가활동의 다양화 양상은 '남는 시간을 즐길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젊은 층 중심의 외부문화 접촉 차단을 위해 감시 강화 추세

○ 돈주 등을 포함한 경제력 확대 계층 증가는 소비 및 여가활동의 다양화로 연결

- 고급 식당에서의 외식뿐만 아니라 상점, 체육·문화·미용 시설 등이 밀집한 종합편의시설을 이용한 여가활동 증가

○ 북한 당국은 한류를 포함한 외부문화 유입에 취약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 단속 및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규제, 처벌 조항 법제화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년), 청년교양보장법**(21년) 제정

* 자유아시아방송(2021.2.1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시작되는 새해"

** 뉴스1(2021.9.30), "'청년교양보장법' 상정한 북한, 계속되는 청년 사상 단속"